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 AMCF 선교협력위원회

## M · S · O

###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 기독교인은 평화를 어떻게 얻고 지켜야 할 것인가?
- 하나님이시여 조국을 지켜주소서!
-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 세계군인들 한국 군선교 현장에 오다
- 말레이시아에 103번째 MCF가 설립되다
- 제 4차 슬라브권 여성 군사역자 수련회
- 구약에서의 선교의 기초

통권 7호  
2006 NO. 3



# “땅에는 평화”

## 기독교인은 평화를 어떻게 얻고 지켜야 할 것인가?

김세윤 목사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신약학교수)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 땅위에는 하나님의 평화(눅 2:14)가 임하는 사건이며 이 사건은 온 세상을 향한 평화의 표시, 평화의 메시지이다.

군인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어떻게 얻고 지켜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기사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명으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으로) 유대 갈릴리 땅(수리아 지방에 편입됨)의 모든 유대인들도 고향에 돌아가 호적하라(세금내도록)는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대의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북 라인강, 다뉴브강, 동 이란, 서 스페인북부, 남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북부를 통치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그것을 이룬 분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버지 줄리어스 시이저였고 백성은 그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푼 왕이라고 칭송하고 예배를 드렸으며 그 아들 역시 신격화되어 숭배를 받았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피지배국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착취의 대가로서 얻었던 평화로서, 지배자의 평화는 정당화되었다.

누가는 세상 백성의 평화의 왕 가이사 아구스도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대조시키고 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들로 행사하실 분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늘, 땅의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이신데도 세상에 오실 때 따뜻한 여관방 한 칸 얻지 못하여 남의 마구간 말 밥통에서 탄생하셨다.

또한 그 분은 당시 로마시대 가장 잔인하고 악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으며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다가 결국 남이 빌려준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 역설은 세상적 실존과 대조된다.

이 얼마나 역설인가?  
요한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 보좌에 등극된 유다의 승리한 메시야가 죽임당한 어린양으로 앉아있는데 자기희생의 죽임당한 어린양은 하나님의 방법, 전쟁의 잔인한 방법이 아닌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로서 정의를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군대는 전쟁과 관련하여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인 군대로서 군대에서 목양하는 군목, 장교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군대는 가이사 방법의 평화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가이사 방법 아닌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군사, 지도자, 인도자로 살며 우리 임무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군인들은 전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첫번째 입장은 과격파(침례교 전통)태도인데 기독교인은 순교, 희생만 있다. 아무리 악한자 침략해도 자기희생, 즉 십자가에 철저히 자기를 내어 주는 방법으로 평화 유지하는 것이다.

두번째 입장은 침략전쟁 정당화 할 수 없다. 가이사의 방법은 정당화 할 수 없지만 방어전쟁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큰 악이 침략해 올 때 전쟁은 할 수 있는 것이며 타락한 세상에서 방어전쟁으로 악한 침략자들로부터 민족의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세번째 입장은 근본적 신학적 입장에서 방어전쟁으로 지키지만 가이사의 방법보다 기도함으로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 믿어 전쟁 없는 기도전쟁으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반역하는 인류를 자신에게 화해시켜 평화를 이루게 하셨고 (고전5:19-20) 사람과 사람사이의 원수,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 몸에 하나로 통합, 화해시키는 평화를 이루셨다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 인류간의 평화를 누리게 하였다. 이 진정한 평화의 왕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두 평화의 왕 대결에서 세상의 왕 빌라도는 신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인 사형에 처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부활하신 만유의 주로 높여 온 인류 모든 존재로 하여금 무릎 꿇고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시인 (빌 2:9-11)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다.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은 무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자기희생의 방법, 죽임당한 어린양의 방법으로, 잔인한 사단의 방법이 아닌 사랑으로 거짓이기고, 하나님의 전쟁은 만인이 만인의 늑대 되어 전쟁 끊이지 않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방법, 죽임당한 어린양의 대속으로 우리와 화해시키셨다.

현재 우리들은 방어전쟁으로서 나라를 분명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어태세인 기도함으로서 이 땅에 민족상잔의 전쟁에 빠지지 않도록, 본문(눅2:1-14) 묵상하며, 말구유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어린양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만인이 만인에게 자기 뜻을 강요하며 늘 늑대가 되어 싸우는 이 시대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평화의 구원주로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방법으로 죄인들과 화목케 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군사로 그리고 위태로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전하는 예수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선교회가 널리 전파되어 모든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쓰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내리신 평화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 2005. 12. 11(주일) 14:00 국군중앙교회  
OCU/KMCF 창립 49주년 기념감사예배 설교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장병들!  
하나님이시여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제51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민·관·군이 연합하여 '06. 6. 4(주일) 14:00 국군중앙교회에서 KMCF 주관으로 현충일 합동기념예배를 드렸다. 조국의 위기 때마다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 전몰장병들, 호국용사들,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번영을 가져왔다.

금년은 6·25발발 56주년이 되는 해로 56년 전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동족상잔을 일으켜 한국군과 유엔군 전사(사망)777,360명, 부상 555,022명, 실종(포로)42,769명, 민간인 사망 373,599명, 부상 229,625명, 실종(납북) 387,744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80%이상의 국토가 폐허가 되는 엄청난 참화를 가져왔고 1,000만 이산가족과 320만 명의 월남동포, 30만의 미망인, 10만 명의 어린이가 고아가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한없는 고통을 가져온 6·25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전란이 재현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줘야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피땀으로 지킨 조국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소원하며...



**아~이 날을 어찌우리 잊으랴!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국군종목사단(단장 김종준 목사)과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회장 이상희 대장) 공동주최로 OCU/KMCF 창립 50주년 제 16회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가 "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하라"(레 25:9-10)라는 주제로 6. 22-24까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되었다. 수많은 기독교장병들, 현역, 예비역들, 군무원, 군인가족들, 외국인들, 많은 교회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적인 통일과 군복음화와 국군장병의 안전을 위해, VISION 2020실현운동과 인류복음화를 위해, 특히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와 조국의 평화를 위해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산리 기도동산이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금번 성회는 김종준 목사(한국군종목사단장), 김영철 목사(국방부 군종실장), 홍원표 목사(해군 군종실장), 설영현 목사(육군 군종실장), 박종순 목사(충신교회), 권경환 목사(오산리 기도원장), 장경동 목사(중문교회),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의 말씀선포와 전 북한여군 이옥 하사의 특별간증, 특별 심야기도회 등 시간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성회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는다.

# 외국 기독교인들! 한국 군선교 현장 참관하다

(Military Evangelism Observation Program)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 8)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MSO는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에 기독교인회(MCF)가 설립되도록 도우는 군선교기관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나누어 국외의 각 나라에 나가서 MCF 설립을 도우는 길이 있고, MCF 미설립 및 활동이 미약한 국가의 기독교인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의 군선교 현장을 견학, 체험하게 하고 Seminar, 성경공부, 대화식 기도, 전도방법 등을 알려주어서 본국에 돌아가 MCF 설립과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후자의 계획이 MEO 프로그램(Military Evangelism Observation Program)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신학생도 함께 초청하여 이 계획에 참가하게 하여 그 나라의 군선교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06 제 2회 MEO Program은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에 맞추어서 6.20(화)~26(월) 6박 7일 간 국군중앙교회, 오산리 영산수련원 등 9개소에서 개최하였으며, 짧은 일정 중에서도 그들에게 먼저 한국 군선교와 세계 군선교 활동을 소개 (KMCF, KVOCU, Vision2020, AMCF, MSO 등),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참석, 안보견학, 군윤리 리더십 교육 및 제자훈련 (성경공부, 기도, 전도 등), 국가별 소개, MCF 설립/활성화 토의/ MCF 임원과의 친교시간을 가졌고, 한국의 문화탐방(경복궁, 박물관, 국립묘지, 코엑스 전자전시관), 민박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한국에 역사하신 은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한국의 군선교 현장에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 본국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MCF 조직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주관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사역에 많은 분들의 지원, 그리고 여러 기관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수고가 깊게 배여 있다.

국방부, 1군단 예하 여러 부대, 국군중앙교회, 영산수련원 등 많은 분들과 교회, 기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초청된 군인들의 항공료 전액을 부담한 국군중앙교회(홍석훈 담임목사), 후원 해주신 대구북방선교회와 초청된 외국군인들을 민박으로 도우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 참가자 현황

○○○국	1인	중령 M. Pavel(MCF 회장)
○○○국	2인	예)중령 S. B. Shakirovich 대위 C. M. Joldoshbekovich(MCF 총무)
벨라루스	2인	예)준위 Zhukau Nikalai 예)소령 Lotarau Aliaksandr
네팔	2인	예)상사 Mukta Singh Rana(MCF 회장) 예)상사 Indra Kumar Basnet
캄보디아	2인	준장 Prum Pheng 중위 Prum Hieng
○○○국	1인	예)대위 H. X. T.
통가	2인	해군소령 Sione Uaisele Fifita (MCF 회장) Ikani Taliai Tolu 목사
호주	1인	군목 Allen George Neil (AMCF VP(Pacific) 등 13명

### ▶ 외국인 신학생

우즈베키스탄	2인	총신대
네팔, 미얀마	2인	햇불 트리니티 신대
카자흐스탄	1인	아세아 연합 신학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인	장신대 등 7명

계 11개국 20명이 참관하였다.

## ♣ 행사 중요 일정

- 6. 19-20 영접 및 인사
- 6. 21(수) 한국의 군선교 현황 소개(KVOCU, MEAK, KMCF 등)  
전쟁기념관 관람  
수요저녁예배 참석 (국군중앙교회)
- 6. 22(목) 안보견학 (남침땅굴, 도라전망대)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참석  
세계 군선교현황 소개(AMCF, MSO)  
참가국 소개 및 간증
- 6. 23(금) 새벽기도회 참석  
군 윤리 리더십 교육  
귀납적 성경공부 (Inductive Bible Study)  
대화식 기도 (Conversational Prayer)  
4영리(Four Spiritual Laws)  
국가별 토의, MCF 활성화 토의
- 6. 24(토) 진중세례식 참관(9사단)  
2006 SEK 전자제품박람회 관람(COEX)  
민박
- 6. 25(주일) 주일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 참석)  
경복궁 방문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  
문화탐방 (경복궁, 동대문시장)
- 6.26-29 출국





## 참가자 소감

### ▶군목 Allen Neil (AMCF 태평양지역 부회장, 호주 대표)

(MSO)의 현대에 감사한다.  
MEO프로그램은 2004세계대회보다 더 Modernized 된 것 같다. 내년 태평양 연안 국가(15개국) 등의 지역대회 개최를 위해서 MSO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 ▶준장 Prum Pheng (캄보디아 Udong 부대 지휘관)

초청해 주어서 감사하다. 한국군선교현장을 통해서 큰 충격과 감명을 받았다.

작년 영어캠프가 큰 도움이 되었고 금년을 기대한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기독교에 문호를 개방되기를 소원한다.  
입법을 통해서 보장되도록 기도 부탁한다.

### ▶중령 M. Pavel (OOO국 MCF 회장)

정말 놀랍다.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현재 극소수의 군신자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현역군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신앙정보가 전무하다.  
MCF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물질양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 ▶예)대위 H. X. T 목사 (OOO국 대표)

해외여행 처음이다  
한국 6.25 기독교병 구국성회와 MEO프로그램에 깊은 감동 받았다. OOO MCF 설립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겠다.

### ▶예)상사 Mukta Singh Rana (네팔 MCF 회장)

초청해 주어서 감사하다.  
네팔의 경제는 매우 열악해서 정부에서 현역들의 믿음생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네팔 MCF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과 봉사요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 ▶예)중령 S. B. Shakirovich (OOO국 대표)

한국군선교현장을 보고 그저 놀라울 뿐이다.  
75%이상이 무슬림이며 아직도 공식적으로 전도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군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진급되었다. OOO의 군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태권도, 영어캠프를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예)준위 Zhukau Nikalai (벨라루스 대표)

초청해 주어서 감사하다. 한국의 군선교현장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MCF가 설립되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나 주님을 영접한 군인들이 매우 열정적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선교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MCF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 ▶해군소령 Sione Uaisele Fifita (통가 MCF 회장)

전국민의 98%가 기독교 신자이며 모든 군인들이 기독교인이다. MCF 회장(자신)이 해군 사령관으로서 기지내의 MCF는 활성화 되어있다.  
MCF 사역을 위해서 MSO 후원과 지원을 부탁한다



# 말레이시아에 103번째 MCF가 설립되다

## MCF설립국가 현황

2006. 5. 27(토) 동남아시아(South East Asia (SEA)) 말레이시아에서 MCF가 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 MCF의 공식명칭은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of Malaysia (MCFM)이다. MCF 회장은 LTC (Ret) Raymond Goh (2004 WC 참가)이며 MCF 회원 10명이 모였다.

이 모임에서 서울에서 개최된 2004 세계기독교인대회 CD 관람 후 SEA (동남아시아)부회장인 Ben Ciron 장군은 MCFM 인증서에 사인을 한 후 Raymond Goh에게 주어 MCFM 설립 인증서가 수여되었으며 감사와 친교를 위한 저녁을 함께 하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MCF에 대하여 Raymond Goh가 이필섭(5/30)회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27일(토) 말레이시아 MCF 발족을 위한 취임식이 있었으며 당일에 Ben Ciron 장군이 와 주어 모임이 더욱 빛났습니다.

본인은 스가랴 4:10절을 인용하여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 눈이니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빌리 그레함이 목회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라고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Ben Ciron 장군은 축사에서 필리핀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MSO는 말레이시아의 MCF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2004 세계대회 이후 세계 곳곳에서 MCF가 설립되고 있다. 동유럽 몰도바에서('04.11.6), 남태평양 통가에서('05.1.27), 중앙아시아 000국과 000국에서('05.2.26),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05.7.15)' 아시아 네팔에서('05. 11.18) MCF가 설립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MCF가 설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전세계 MCF설립 현황을 소개한다.

## \*AMCF 지역별 현황(2006. 6. 1 현재)

지역	국가 수	MCF설립	MCF미설립	
			접촉	미접촉
북미	16	16	0	0
중미	9	9	0	0
남미	11	11	0	0
동북유럽	20	9	9	2
중남유럽	29	10	13	6
불어권아프리카	13	7	6	0
서아프리카	8	4	2	2
남아프리카	14	8	6	0
동아프리카	12	6	5	1
남아시아	8	2	5	1
동남아시아	11	7	3	1
동아시아	11	7	2	2
태평양	15	6	2	7
중동	19	1	6	12
계	196	103	59	34
			93	

# 제 4차 슬라브권 여성 군사역자 수련회



제 4차 슬라브권 여성 군사역자의 수련회가 러시아(RMCU)주관으로 “잃은 양을 찾자.”의 주제로 모스크바 소재 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4. 28-30 간 은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여성 수련회에 한국의 김영덕 장로, 허성화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허 목사는 기독교 여성의 군선교사역의 역할과 간증,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멀리 흑해에서 3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온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함으로써 즉각 말씀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기간 내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피차 큰 은혜를 나누었고 격려의 시간이 되었다.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이 집회를 주관한 러시아 군 선교사 (강태원 목사)의 보낸 서신이다.

## ▶ 제 4차 슬라브권 여성 군사역자 수련회 ◀

- 수련회 일시 / 장소 : 2006. 4. 28(금) ~ 30(주일) (2박 3일) / 모스크바 복음주의 신학교
- 각국 참가자 : 러시아 52, 우크라이나 3, 벨라루스 5, 한국 7인 (총 67인)\* 현역 신지혜 대위 참가 (여, 모스크바서 유학중)
- 주 제 : “잃은 양을 찾자.” (요한복음 10:16)
- 목 표 : 여성의 직접적인 군 접촉과 봉사를 촉구하고, 기독교 여성을 통해 해 지역 교회의 군전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
- 강 사 진
  - 러시아 측: 바카 파벤 복음주의교단 부총회장, 알렉 러시아 MCF회장
  - 한국 측: 김영덕 장로와 허성화 목사, 뉴욕 참빛교회 안태호 목사 와 안사라 사모
- 활동내용
 

구 공산권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 개방되지 않은 군을 향해 여성이 기도를 통해 인내 있는 전도활동의 소명이 있음을 참가자들이 확인하였으며, 한국 교회의 일치 단합된 군선교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

고, 미주한인 교회의 고난과 극복의 삶을 나눔으로 슬라브권 교회에 소망찬 도전과 격려를 전하였음.

- 후속계획
  - 참가자들 간에 분기별 기도문을 발간하며, 정기적인 기도회합을 통해 지역교회에 군전도 활동을 소개, 군전도 참여를 신장키로 함.
  - 우크라이나 MCF에서 우크라이나에도 이와 동일한 여성 군사역자 수련회를 개최해 주기를 요청함으로써, 적정시기 시행할 계획임.

- 마침말
 

분주한 중에도 구 소련 슬라브권 군선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오셔서 많은 감동과 격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헌금과 선물을 지원해 주신 김영덕 장로, 허성화 목사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위해 MSO와 한국기독교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근래 러시아 국방부에서 심의중인 군종제도가 실현되어 기독교 군목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06. 5. 2 강 태 원 목사 드림



▲ 모임에 참석한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 중인 신지혜 대위와 함께





## 「이라크 쿠르드족 교회 지도자들 KMCF/MSO 방문」

4. 19(수) 05:40~09:40 이라크의 쿠르드족 교회지도자(이라크 정부로부터 최초승인) 하 짐(Hazim J. Joka)담임목사의 4



명이 한국 임마누엘교회(담임 김국도 목사) 초청에 의거 방한기간 중 KMCF/MSO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KMCF 조찬기도회에 참석 후 MSO 사무실을 방문하여 MSO현황 설명과 관심사항에 대해서 장시간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쿠르트교회를 대표해서 Hazim목사는 “오늘 초청에 감사드리고 자이툰 부대가 많은 것을 돕고 있고 자이툰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

현재 쿠르트 교회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교회를 건축하고 있으며, 쿠르트 지역은 57개 아랍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요충지이다. “많은 지도와 협력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그들의 질문사항은 어떻게 쿠르트군에 MCF를 설립하며, 쿠르트족 복음화를 위해서, 난민 300만명을 도우는 문제, 신학공부를 위해서 한국에 올때 학비와 체제비 등의 지원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으로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토의 말미에 MSO 위원장 이 준 장로는 “한국이 과거 복음전래 120년 가운데 일제침략과 6·25전쟁을 겪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거 과거의 나쁜 관습과 문화를 청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조국의 번영을 이루었다. 협력 창구는 자이툰 부대이다.”라고 답하면서 대답을 마쳤다.

**쿠르트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온 회교권에 전파되기를 소원한다.**

## 「AMCF 회장 (이필섭 장로)의 주요동정」



4. 20(목) 07:30 삼성동 COEX 컨벤션 센타 (사)국가 조찬기도회 참석

5. 3(수) 11:00~12:00 국군중앙교회에서 TEE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AMCF 비전 소개

5. 7(주일) 19:00 충남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AMCF Vision 간증설교

5. 17(수) 07:00 여전도회관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동양선교교회)총회 참석 격려

5. 28(주일) 14:00 구리 교문교회 (최대원 목사) 간증설교

6. 1(목) 11:30~13:00 국방회관 제 29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오찬기도회 참석 격려

6. 11(주일) 19:00 육군본부교회 방문예배 참석 격려

## 「MSO 위원장(이 준 장로)의 주요동정」



4. 9(주일) 14:00 일산 삼위교회 (김영덕 담임목사) 여전도회 헌신예배 간증설교

4. 10(월) 07:40 극동방송 채플시간 간증

4. 28(금) 10:00 신촌장로교회 (오창학 목사) 여전도회 간증설교

5. 9(화) 09:30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 선교대회 MSO사역과 간증설교

6. 9(금) 21:30 여의도순복음교회 금요철야예배 간증설교

# MSO는 세계 각국의 MCF 설립과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하는 나라의 군대내에서 영어캠프 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금년 여름에도 캄보디아,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영어캠프 사역활동이 실시된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한다.

(다음 호에 사역활동을 소개할 예정)

# 선교의 성서적 기초

- 요하네스 · 바빙크(Johannes Bavinck) -

여기 실리는 글은 화란의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 바빙크(Herman Bavinck)의 조카인 요하네스 · 바빙크가 1984년 화란어로 출판한 명저 "선교학 입문"(Inleiding in de Zendingwetenschap, 1980년에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으로 영역됨)의 제 2,3,4장을 번역(곳에 따라 요약 번역)한 것이다. 요하네스 · 바빙크는 친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고, 화란 브라이 대학(Vrije Universiteit) 선교학과를 창설한 저명한 선교학자이다. \*앞으로 지면이 허락하는 한 전통적 복음주의 입장에서 선교의 성서적 기초에 관한 글을 게재하려고 한다.

## 1. 구약에서의 선교의 기초

### 1. 선교활동의 토대

구약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열방의 장래가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방열국들도 장차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제가 구약 첫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 세계에 관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 성경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지적하고 있다. 땅위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선교원리 중 가장 심오하고 기초적인 원리가 된다.

창 1:1은 마 28:19,20의 대위임령의 필수적인 기초이다. 창세기와 연관하여 행 17:26의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은 선교 분야에 있어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전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전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 것이다.

(2) 하나님이 전 세계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그가 전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시사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시 24:1)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시33:13)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내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감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 하여 그의 의로운 통치로부터 제외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도 그의 통치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셨고, 복종하지 않고 변절하고 부패할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셨다.

(3)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상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요 재판관이시므로 만민들이 그를 섬겨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선교 할 필요가 있다. "그러즉 너는 오늘날 상천 하지에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 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신 4:39).

(4) 이스라엘의 구별이 만민에 대한 관심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구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상 필요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폐지될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구별되어 나올 때도 아브라함 속에서 만민이 복 받을 것이라 하였다(창12:3).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와 관련하여 더 강력하게 반복되었다(창22:18). 이스라엘의 구별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은 이방구원에 관한 예언들의 씨앗이 되었다.

(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종교의 독특한 언약구조이다. 이스라엘 주변국가의 이교도들은 신들이 자기나라 속에 성육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정복은 동시에 그들의 신을 비하시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의 랍사게의 조롱이 바로 이것을 보여준다. "하맛과 아르바트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민족의 멸망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멸망과 동일시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는 이교 국가들처럼 동일시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였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대적들에게 넘기고, 진노하여 질병과 기아로 괴롭히고, 타민족의 압제 밑에서 오랫동안 신음하게 하는 등 자기 민족을 징계하셨으나 여호와 자신은 결코 패배를 당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백성이 곤고에 빠질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드러났으며 자기 백성을 대대토록 축량할 수 없는 성실로써 인도하시는 분으로 스스로 입증하셨다.

선교활동은 이러한 언약의 개념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방 종교들은 피정복민들에게 강요될 수 있었다. 한 국가의 신들과 다른 국가의 신들은 명칭이 다를 뿐 동일시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혼합주의가 이방종교에서는 가능했다. 그러나 영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른 민족을 그 민족의 종교에 대한 신앙으로 전향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일은 오로지 언약의 구조 속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타국가들도 장차 그 언약 속에 포함될 수가 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독특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선택은총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다만 더 큰 영광과 더 큰 책임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오직 타민족들이 장차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수단이 될 것이었다.

(6) 이스라엘 역사는 주변 국가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본적으로 엮어진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타민족들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세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어찌하여 애굽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계 하려 하시나이까?"(출 32:12). 아이성에게 패전당한 여호수아의 고백도 그런 것이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수 7:9).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것이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사 37:20). 경건한 이스라엘 시인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한 다음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다.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시67:2).

하나님께서 세계에 대한 그의 구원계획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실패와 승리, 위대함과 비천함, 놀라운 구원과 무거운 고통 등 역사를 이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그의 팔을 온 세계에 펴셨다.

(7)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theocentrically) 체험했다. 이스라엘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방인들의 부당한 위협과 유혹을 겪어서 이방종교의 마귀적 요소에 대한 거룩한 공포마저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교만, 그 엄청난 죄악과 불의와 완악을 목격했다. 심지어 이런 외마디 소리도 발할 때가 있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 뿐인줄 알게 하소서"(시 9:19,20).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아간다면 압제와 추방도 능히 참을 수 있었다. 이와같이 이스라엘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8)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도록 열방에게 호소하는 시편의 많은 표현들도 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시 99: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찌어다"(시47:1). 물론 이런 외침이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적 선포는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의 이교도도 그 외침을 듣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계속적인 간증을 통하여 이교의 치명적 마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 세계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스라엘은 포로생활을 통하여, 전쟁의 쓴잔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방 중에 알리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의 불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거운 고통의 멍에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더 가까이 접촉하게 하셨을 때 활활 타오를 수 있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 바벨론과 페르샤 제왕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했고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는 그 주인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능력을 전해 주었다(왕하5:1-3).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선교의 개념을 내포하는 근본원리들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선교개념은 하나님 자신의 때가 완전히 찼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지만 구약사상 속에서도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상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으나 때가 되자 분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에의 문호는 사방으로 개방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역자: 김명혁 목사 (강변교회 담임)

서울대 문리대졸/ 미국 웨스터 민스터 신학대학원졸(Th.M)

미국 예일대 신학대학원졸(S.T.M)/ 미국 아퀴나스 신학대학원졸(Ph.D)

총신대 신학원, 합동 신학원 교수역임

200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영수증을 대신하여 후원내용을 본 란에 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하는 MSO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후원자 명단**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정기, 류정호, 박신한, 우항영, 이동성, 정봉룡, 최재호, 최종섭, 허홍범, 홍종진 (1만) 강신봉, 강양순, 고광남, 고정자, 김경미, 김사웅, 김선옥, 김수미, 김수연, 김승남(1~12월), 김영섭, 김영환, 김용만, 김은영, 김익현, 김진걸, 김찬수, 김충효, 김태구, 김태식, 김효배, 남봉균, 노재은, 박경진, 박용숙, 박중웅, 박헌근, 배기훈, 배영희, 성윤정, 신성평, 안장섭, 양광산, 양항권, 오형재, 유재혁, 윤병국, 윤종성, 윤현철, 이동수, 이상인, 이성원, 이재원, 이종선, 이종환, 임미라, 임옥철, 임일순, 장 봉, 장호근, 전성동, 전일재, 전재범, 정기정, 정성태, 정성훈, 정영희, 정종철, 조경훈, 조승연, 조원일, 조주로, 조춘기, 진미정, 진철호, 최기덕, 최동근, 최수웅, 최종철, 최지영, 한현진, 한현철, 허 욱, 허창식(1~12월), 현지원, 황경자, 황구연 (2만) 강덕동, 권안도, 권오성, 권오용, 김영규, 김종필, 김진욱, 박백만, 박우주, 박종임, 복기승, 손창문, 송고성, 이만영, 이숙현, 이원목, 이의규, 정방호, 정봉대, 정완용, 정재연, 조연식, 차동길, 허성화, 황인규 (3만) 김기범, 김덕수, 김덕중, 김언용, 김왕구, 김이라, 박헌진, 배윤규, 이필섭, 장문석, 정용선, 정원호, 조영호 (4만) 김태기 (5만) 김영덕, 김종득, 남궁환, 안주홍, 윤여일, 이갑진, 임만채, 최기우, 하점례(4~5월), 홍귀애 (10만) 이 준, 이계심, 장길평, 장상현, 정명진, 차 윤

◆교회 및 기관 (5만) 대길교회 (10만) 2군사 무열대학교, 강남중앙침례교회, 국군서울지구병원, 남현교회, 다니엘교회, 서울남교회(2~4월), 서울노회 여전도회, 성덕중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신장위교회, 예수사랑교회 (10만5천) 서울영동교회 (15만) 예심교회 (20만) 세광교회, 일원동교회, 충신교회, 해군중앙교회 (30만) 대구기독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3만) 이명식 (10만) 권영해(김효순), 신신애, 최태곤 (15만) 배현주 (30만) 이 준 (50만) 이동일 (100만) 포항제일교회 (120만) 은혜교회 (500만) 국군중앙교회 (\$100) 엘바인열린문교회, 충현선교교회, 벨리하나로교회 (\$300) 동양선교교회

**5월 후원자 명단**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정기, 류정호, 박신한, 우항영, 이동성, 이정자, 정봉룡, 최재호, 최종섭, 허홍범, 홍종진 (1만) 강선미(윤종태), 강신봉(5~6월), 강양순, 고광남, 고정자, 김경미, 김사웅, 김선옥, 김수미, 김수연, 김영섭, 김영환, 김용만, 김은석 (3~5월), 김은영, 김익현, 김진걸, 김찬수, 김충효, 김태구, 김태식, 김효배, 노재은(5~6월), 박경진, 박범중, 박용숙, 박중웅, 박헌근, 배기훈, 배영희, 성윤정, 신성평, 안장섭, 양광산, 양항권, 오형재, 유경식, 유경재, 유재혁, 윤병국, 윤종성, 윤현철, 이동수, 이상인, 이성원, 이승욱, 이윤우, 이재원, 이정우, 이종근, 이종선, 이종환, 임미라, 임옥철, 임일순, 장 봉, 장호근, 전성동, 전일재, 전재범, 정기정, 정남기, 정성태, 정성훈, 정영희, 정운식, 정종철, 조경훈, 조승연, 조원일, 조주로, 조춘기, 진미정, 진철호, 최기덕, 최동근, 최수웅, 최종철, 최지영, 한현진, 한현철, 허 욱, 현지원, 황경자, 황구연 (2만) 강덕동, 권안도, 권오성, 권오용, 김병욱, 김영규, 김종필, 김진욱, 박우주, 박종임, 손창문, 송고성, 윤재관, 이경선, 이만영, 이숙현, 이원목, 이의규, 정방호, 정봉대, 정완용, 조연식, 차동길, 허성화, 황인규 (3만) 김기범, 김덕수, 김덕중, 김언용, 김왕구, 김이라, 박헌진, 배윤규, 이필섭, 장문석, 정용선, 정원호, 조영호 (5만) 김영덕, 김종득, 남궁환,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이선혜 임만채, 홍귀애 (10만) 권오성B, 이준, 이계심, 장길평, 장상현, 장용선, 차 윤, 최기우

여일, 이갑진, 임만채, 홍귀애 (10만) 권영해, 이 준, 이계심, 장길평, 장상현, 정명진, 차윤  
◆교회 및 기관 (5만) 대길교회 (10만) 2군사 무열대학교, 강남중앙침례교회, 국방대학교(4~5월), 남현교회, 다니엘교회, 서울남교회, 서울노회 여전도회, 성덕중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신장위교회(5~6월), 예수사랑교회 (10만5천) 서울영동교회 (15만) 예심교회 (20만) 세광교회, 일원동교회, 충신교회, 해군중앙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5만) 강양순 (10만) 늘푸른동아리, 오신기, 배윤규 (20만) 신용백, 이계심 (50만) 이명복, 김두옥 (\$100) 엘바인열린문교회, 충현선교교회, 벨리하나로교회 (\$300) 동양선교교회 (\$577.19) LA 매일교회

**6월 후원자 명단**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정기, 류정호, 박신한, 우항영, 이동성, 이정자, 정봉룡, 최재호, 최종섭, 허홍범, 홍종진 (1만) 강길수, 강선미(윤종태), 강양순, 고광남, 고정자, 구창서, 김경미, 김기래, 김사웅, 김선옥, 김수미, 김수연, 김영섭, 김영환, 김용만, 김은영, 김익현, 김종현, 김진걸, 김찬수, 김충효, 김태구, 김태식, 김학명, 김효배, 노재은, 두은순, 민승미, 박경진, 박두양, 박범중, 박용숙, 박중웅, 박헌근, 박현영, 배기훈, 배영희, 변현수, 서정기, 성윤정, 송일강(4~6월), 신성평, 신승봉, 안장섭, 안정선, 양광산, 양항권, 염옥선, 오형재, 유경식, 유재혁, 윤병국, 윤종성, 윤현철, 이기찬, 이동수, 이상인, 이성원, 이승욱, 이윤우, 이재덕, 이재원, 이정우, 이종근, 이종선, 이종환, 이청연, 임미라, 임일순, 장 봉, 장호근, 전성동, 전일재, 전재범, 정기정, 정남기, 정성태, 정성훈, 정영희, 정운식, 정종철, 조경훈, 조승연, 조용도, 조원일, 조주로, 조춘기, 지태환, 진미정, 진철호, 차성철, 최기덕, 최수웅, 최영창, 최종철, 최지영, 한용현, 한현진, 한현철, 허 욱, 현지원, 황경자, 황구연 (2만) 강덕동, 권안도, 권오성A, 권오용, 김병욱, 김영규, 김종필, 김진욱, 박우주, 박종임, 손창문, 송고성, 윤재관, 이경선, 이만영, 이숙현, 이원목, 이의규, 정방호, 정봉대, 정완용, 조연식, 차동길, 최영관(1~6월), 허성화, 황인규 (3만) 김기범, 김덕수, 김덕중, 김언용, 김왕구, 김이라, 박헌진, 배윤규, 이필섭, 장문석, 정용선, 정원호, 조영호 (5만) 김영덕, 김종득, 남궁환,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이선혜 임만채, 홍귀애 (10만) 권오성B, 이준, 이계심, 장길평, 장상현, 장용선, 차 윤, 최기우

◆교회 및 기관 (5만) 대길교회 (10만) 2군사 무열대학교, 강남중앙침례교회, 국방대학교, 남현교회, 다니엘교회, 서울노회 여전도회, 성덕중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신장위교회, 예수사랑교회, 의무사 MCF (6~7월) (10만5천) 서울영동교회 (15만) 예심교회 (20만) 세광교회, 일원동교회, 충신교회, 해군중앙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10만) 장신대 평신도대학원 #12 (20만) 이계심, 임인창 (30만) 배현주 (300만) 북방선교회 (800만) 이진수 (1천5백만) 국군중앙교회 (\$132) 김보디아 프놈펜 (\$300) 미국 동양선교교회 (\$370) 미주 나성열린문교회 (\$1,000) 이갑진

\* 영수증을 대신하여 후원내용을 본 란에 실습니다. 착오나 문의사항이 있거나 별도의 영수증 또는 본회 지로용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 온라인 계좌번호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월 정액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후원됩니다.
2. 인터넷 지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WWW.giro.or.kr에서 회원등록을 하고 본회 지로번호(7672266)로 후원하시면 편리합니다.
3. 온라인 계좌번호를 이용, 계좌이체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본회 온라인 계좌번호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은행(우체국, 농협등)에서 본회 발행 지로용지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MSO후원 출금 이체 신청서**

회 원 명			
전 화 번 호	자택	핸드폰	
주 소			
*은 행 명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예 금 주		*주민(사업자)번호	
*계 좌 번 호		*월 후원금	
*출 금 일 자	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 임

-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배윤규)  
· 국민은행 477401-01-079703 · 우리은행 1002-629-510072 · 농협 094-12-149224 · 우체국 010025-02-233906
- ◆ 지로입금 : 지로 번호 7672266 MSO (AMCF 선교협력위원회)
- ◆ 문의전화 : 일반) 02-795-6225, 797-6763 / 군) 900-4091 / H.P.) 010-6339-2281(선교실장 허성화 목사)

인천상륙작전을 감행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초대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군인이며 아버지의 시"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소식지에 실는다.

##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한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 군인이며 아버지

나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나는 내가 군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라는 것이 더욱 더 무한하게 자랑스롭습니다.  
군인은 새것을 만들기 위해 파괴하지만  
아버지는 지을 뿐, 파괴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자는 죽음을 내포하고 있지만  
후자는 창조와 생명을 간직합니다.  
비록 죽음의 때가 막강하지만  
생명은 더 많은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를 전장에서 모습 보다  
집에서 아들과 함께  
평범한 기도를 같이 하던 모습으로 아들에게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 A Soldier and Father

"By profession I am a soldier  
and take pride in that fact.  
But I am prouder -- infinitely prouder -- to be a father.  
A soldier destroys in order to build;  
the father only builds, never destroys.  
The one has the potentiality of death;  
the other embodies creation and life.  
And while the hordes of death are mighty,  
the battalions of life are mightier still.  
It is my hope that my son, when I am gone,  
will remember me not from the battle field  
but in the home repeating with him  
our simple daily prayer,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 General Douglas MacArthur



우) 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국군중앙교회 4층 MSO (AMCF 선교협력위원회)  
☎ 02-795-6225, 3917 / 748-4091  
팩스 02-797-6764  
Email: mso2004@paran.com  
http://mso.or.kr